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26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25.(화)	담당부서	유통물류과
담당과장	정종영 과장 (044-203-4380)	담 당 자	정병찬 사무관(044-203-4382)

주형환 산업부 장관, 유통부문 4차 산업혁명 현장 방문

- 이마트몰 김포 물류센터를 방문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논의 -
-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의 동시 향상 강조 -

□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. 26.(수) **최첨단 정보기술(IT)을 접목해 완전 자동화된 이마트몰 김포 물류기지를 방문*** 했다.

*'17.2월에 발표한 "유통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"의 일환임

< 방문 개요 >

○ 일시·장소: '17. 4. 26.(수) 15:00~16:00, 이마트몰 김포 물류센터
○ 주요참석자: 산업부 장관·창의산업정책관, 이마트 사장·부사장 등 8명
○ 주요내용: 로봇·빅데이터 활용한 물류현장 시찰,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 논의

○ 주 장관은 **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'빅데이터'와 '로봇' 등을** 유통물류분야에서 **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점검**하고 **'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'을 논의** 했다.

- 더불어, 우리 유통기업들이 **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** 등을 통해 **4차 산업혁명을 선도**하고 **세계적인 유통 플랫폼으로 도약**해 나가기를 당부했다.

○ 또한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저장장치(ESS)와 같은 **에너지신산업 분야도 적극적인 투자**를 통해 **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함께 향상** 시켜 줄 것을 강조 했다.

□ 이마트측은 **김포 물류센터**가 온라인몰 물류센터로는 아시아 최대규모로서, **로봇과 자동화설비 도입,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고관리** 등 유통물류분야 **4차산업혁명을 실감할 수 있는 물류센터**라고 말했다.

○ 그리고, **2020년까지 수도권에 5개를 최첨단 물류센터를 추가**할 계획이며, **신속한 배송을 위해**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한 **배송기사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**한다고 소개했다.

○ 한편, 이번 5월에 **이마트가 국내 물류센터로는 처음으로 이천 센터에 피크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(ESS, 500kWh)를 구축***할 계획이라며, **에너지신산업 기술 분야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**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.

* 총 구축비 5.49억원중 정부보조 1.37억원(25%)으로, 성과분석을 통해 다른 매장·유통시설 등에 확산 검토

□ 주 장관은 **유통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**과 **에너지신기술 적용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**계획을 밝힘.

○ **4차산업혁명 대응**과 관련해서 지난 2월 유통업계 최고경영자(CEO) 간담회에서 발표한 **유통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**이며,

유통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통해 **유통-물류-정보기술(IT)-제조업체가 함께 참여하여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유통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형태를 개발하고**

- 가상(VR) 쇼핑몰을 10월 코리아세일페스타때 공개하는 등, **4차 산업혁명 신기술 실증사업과 상용화 기술개발에 2018년부터 5년간 150억 원을 투입**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○ 또한, **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(ESS)에 대한 투자 촉진**을 위해, 5월부터 **신재생과 에너지저장장치 할인특례요금제를 대폭 강화***해, **에너지저장장치(ESS) 투자비 회수시간 단축(4.6년→3년), 및 전기요금 절감**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* ❶ 신재생은 기존 설치용량 제한을 삭제하고 신재생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50% 할인, ❷ 신재생과 ESS 모두 설치시 ESS설치규모에 따라 신재생 할인금액 차등지원 신설(신재생할인액의 최대 50%), ❸ 신재생, ESS 특례적용기간 1년 연장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정병찬 사무관(☎ 044-203-43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7-04-26 11:32:45